

민간 나서니 불붙은 코세페 특수... 매출 2배 수직 상승

〈코리아세일페스타〉

올해 처음으로 민간 주도 진행 정부 주도시보다 반응 고무적 소비자 "할인폭 크고 상품 다양"



썸데이 이마트 성수점을 찾은 고객들

/신세계그룹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에 '광군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있다. 11월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대규모 할인 행사로 올해는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유통기업들이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특수를 겨냥해 열린 할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행사명과 행사 기간, 그리고 할인 정도는 각 기업마다 다르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기존 정부가 주도했던 행사 때보다 고무적이다.

먼저,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지난 2일 그룹 내 18개 계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대한민국 썸데이' 행사에서 지난해 같은 날 대비 2배 증가한 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마트에만 전년 같은 날 대비 38% 늘어난 156만명이 몰리는 등 모두 600만명이 행사를 이용했다. SSG닷컴은 매출 163%, 고객 수 131% 증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 중 이마트몰 매출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TV쇼핑에서 360%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신세계L&B 201%, 신세계면세점 177%, 신세계프

라퍼티(스타필드) 133%, 신세계인터내셔널 103% 등 대부분 계열사가 전년 같은 날 대비 100% 이상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마트에서는 반값에 판매한 한우 800마리와 9만9000원에 판매한 32인치 일렉트로맨TV 1500대, 트레이더스 65인치 TV 등이 완판됐다. 스타필드에서는 2억8000만원짜리 초호화 요트가 판매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1~7일 '롯데 블랙 페스타'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등 롯데그룹의 10개 유통 계열사가 총 1조원 규모의 물량을 준비했으며, 경품 이벤트 및 계열사별 쇼핑 지원금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진행했던 2회 행사에서는 계열사에 따라 매출이 최대 40%까지 신장하는 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0일까지 현대백화점, 현대아울렛, 현대홈쇼핑, 현대H몰, 한섬, 현대리마트 등 그룹 내 유통·제조 계열사가 참여하는 '코리아 현대페스타'를 연다. 행사 기간 동안 각 계열사별로 경품 이벤트·대형 행사 등에 집중해 고객이 체감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소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인줄 몰랐다.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할인 행사 중이어서 와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과소비를 했다"며 "어차피 소



빅스마일데이

/이베이코리아

비자들에게 행사명은 중요하지 않다. 세일폭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 이번 할인행사는 세일 폭도 크고, 할인하는 상품들도 다양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매년 11월 연중 최대 할인행사를 기획해온 이커머스 기업들은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 옥션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쇼핑축제 '빅스마일데이'에서 겨울 가전과 초특가 생필품 라인업을 선보이며 매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익일 전용 배송 서비스인 '스마일배송' 매출은 빅스마일데이가 시작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기준 작년 빅스마일데이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1~11일 '블랙 1111데이'에서 누적 거래액 2300억 312만원(전년대비 77% 증가), 누적 판매수량 1511만 7298건(전년대비 15% 증가) 등 주요 수치를 모두 경신하며 11월

유통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오는 11일까지 역대급 혜택을 선보인다.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 쿠폰을 발급하며 ▲패션/뷰티 상품군 30% ▲마트 상품군 25% ▲디지털/가전 상품군 20% ▲여행/E-쿠폰 15% 등을 지급한다.

여기에 매일 3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브랜드관을 열고 중복 사용 가능한 쿠폰을 발급한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최신 인기 상품을 모아 별도 프로모션을 실시, 최대 21%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3종 쿠폰은 제외) 이밖에 카드사 할인, 자정부터 2시간마다 열리는 타임딜 등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쿠팡은 4일부터 2주간 쿠팡 팅큐 위크를 전개한다. 가전, 출산유아동, 뷰티, 생활용품, 패션, 식품 등 카테고리 별 베스트 상품 115만 여개를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기간 동안 매일 오전 7시 '오늘의 특가'를 통해 올해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 상품에 사용 가능한 '시크릿 팅큐쿠폰'도 랜덤으로 오픈 후 일주일간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시크릿 팅큐쿠폰'은 쿠팡앱에 접속한 후 '내 할인' 코너에서 매일 오전 7시에 확인 가능하다.

/신선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공유경제 정책이 오히려 산업발전 저해” “청년수당 줄 돈으로 차라리 기업 만들어야”

>> 1면 '외국인만...'서 계속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을 접거나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결국 사업을 접었다.

공유경제 죽이기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도시민박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유민박업'이라는 숙박업 등록증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1년에 180일에 한해 도심에서도 가정집을 내·외국인에 구분 없이 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민박업 등록증을 취득하면 집주인은 1년 내내 집을 대여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을 포기해야 한다. 1년 내내 대여 가능한 기회를 버리고 180일 대여 가능한 선택지를 고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어비앤비는 지난 9월 한국 정부의 공유 경제 정책이 오히려 관광 산업을 저해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191개 국가 중 내국인을 차별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

겠다고 밝힌 공유민박업은 기존 제도와 맞지 않고 관광 산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법체계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행정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내·외국인 손님을 구분하는 제도를 가진 도시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고 현행 제도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만들고, 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법을 시도하고, 간편 등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전 세계에서 공유경제 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에선 비교적 사업을 잘 이어가던 해외사업자가 오히려 국내 법을 지적하고 나서는 우스운 현실이 됐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약 18조원)에서 2025년 3350억달러(약 401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어촌숙박 공유스타트업 관계자는 "한옥 체험과 농어촌 숙박이 이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도심 지역에선 내국인을 받을 수 없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 공유경제 발전을 막고 외국인 이용자와 사업자를 동시에 차별하는 현행법이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강호갑 중견연 회장 간담회 규제가 아닌 효율 생각한 정책 필요 중견기업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3000억원을 청년 수당으로 준답니까. 그런데 3000억 같으면 우리 회사(신영그룹)를 몇 개 만들어도 됩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는 참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서울에서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 회장의 발언은 돈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만큼 절실하지 않으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속해서 강호갑 회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각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주변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다"며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부처간의 조율, 다른 당과 조율, 이해관계자 간 조율 등 할 일이 많겠지만 그분들은 국민만 상대하고, 우리는 세계를 상대하는 기업"이라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협회

기업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호갑 회장은 우버의 사례를 들면서 규제가 아닌 효율을 생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우버와 택시의 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경쟁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기업 생태계나 산업 생태계에서 저희(중견기업)가 뛰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하려고 하면 법의 개수가 많아지고, 이걸 피하다 보면 또 다른 법이 생기니까 규제하고, 치킨게임이 되는데 이게 멍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호갑 회장은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하며 "시장이 나빠도 시장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 공동체가 선(善)을 위해

자정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 건전한 사회"라며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고 일갈했다.

강호갑 회장은 기업 중심의 정책을 위해서 각 정당의 공천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법안 발의 수로 공천 점수를 줄 것이 아니라 기존 법안을 연구해서 서로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을 없애고 거기에 국가 경제와 국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을 없애는 사람을 공천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호갑 회장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중견기업 주간'에 발표할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견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5억원의 자금으로 국책연구원과 중견기업의 매칭을 통한 성장 지원할 계획이다.

/해한님 기자 ericabae1683@